

종합

軍복무 ‘24개월 환원’ 논란 뜨겁다

임대앞둔 예비장병들 강력 반발·정치권 찬반 ‘갑론을박’

이대통령 “연장 쉽지않아”... 정부 21~22개월 유지 검토

정부가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군 병력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군 복무기간을 기존의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방안을 마

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지시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할 경우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와 정치적 부담 등 여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4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이후 찬반 논란이 들끓고 있다.

당시 군 관계자들은 “병사 복무기간이 줄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이 힘들다면 현재의

22개월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병력을 51만7000명~6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숙련된 전문 병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8개월 복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대를 앞둔 예비 장병들이나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 대학생 정진영(20·2년)씨는 “방학과 휴·복학 일정을 고려해 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며 “복무기간이 최소한 21개월 이하로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군 복무기간 조정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복무기관 환원이 국민 정서상 쉽지 않다”면서도 ‘안보 공백’을 감안해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가 강경 대북정책으로 초래된 남북경색의 부담을 젊은이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복무기간 환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현 수준인 21~22개월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여정부 때 작성된 ‘국방개혁 2020’은 오는 2014년부터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시설

줄속행정이 빛은 여수박람회 ‘수중타워’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핵심시설인 ‘Big-O(Big-Ocean·바다 전시장)’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던 ‘오션타워(Ocean Tower)’ 설치 계획이 무산됐다고 한다. 박람회 조직위가 1년 가까이 추진했던 ‘수중 랜드마크’ 및 돌고래 수중 전시의 꿈이 사라진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세계박람회 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박람회장의 Big-O 구역 안에 설치키로 했던 오션타워를 없애는 대신 대규모 해상무대를 갖춘 문화공원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다 전시장 구역의 탁도(濁度)가 가시거리 80cm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높아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조직위는 지난해 바다 전시장을 각종 해조류가 우거진 인공 숲으로 바꾸고 관람객들이 수심 4~6m에 만들어진 ‘오션타워’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박람회 조성계획을 확정했었다. 그러나 이 야심 찬 구상이 고작 1년 만에, 박람회 개최를 불과 1년8개월 남긴 상황에서 탁도를 이유로 물거품 됐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조직위가 ‘오션타워’를 ‘수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에서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플랑크톤이 많은 현지 수역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행정’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현지 수역에 대한 치밀한 분석 없이 바다 속이 투명한 하와이 일대를 상상의 채 줄속으로 진행했다가 이 같은 결과를 빚은 것이다.

이제 여수세계박람회는 일정상 여유가 없다. 계획 변경은 그만큼 차질을 야기하는 것이다. 정부와 조직위, 여수시가 성공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갈수록 빈번한 자연재해 대비책 서둘러야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주·전남만 해도 곳곳이 전력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각종 시설과 주택이 파손되고 가로수가 뚧히기도 했다. 특히 수확기를 앞둔 벼 707.4ha가 쓰러지는 등 농수축산물의 피해가 컸다. 곤파스는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의 소형급 태풍이었지만 피해는 의외로 대형이었던 셈이다.

곤파스는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실제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곤파스만 해도 지금까지 강한 태풍은 대부분 남부지방으로 상륙했던 것과는 달리 수도권을 직접 강타하고 상륙시간도 예상보다 6시간이나 빠른 등 과거 태풍과

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곤파스는 전통적인 자연재해 대비책을 철저히 손질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경고하고 있는 셈이다.

당국은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과 인식을 바꿔야 한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급변하는 기상과 날로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긴급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도 체계적인 구호 및 대피 시스템 구축, 비상시 응급대처체계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전 대응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기상청은 가을에 곤파스 보다 강한 태풍 1~2개가 한반도에 더 영향을 줄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당국은 태풍 상륙 전과 상륙 이후를 상정한 빈틈없는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유명한 외교관 딸

특채 자진취소

행안부 특혜시비 감사착수

유명한 외교부 장관의 딸이 지난 달 31일 선발한 외교통상부 통상전문 계약직 5급 사무관 특별채용에 합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특혜 시비를 가리고 자 특별인사감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3일 오전 외교부 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채용되는 것이 특혜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딸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공모·응시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본인의 딸은 2006년부터 3년간 통상분야 계약직으로 외교부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사직하게 됐다”며 “이번 응시는 약 1년의 통상분야 계약직으로서 딸은 과거 3년간 근무하던 부처에서 일하기를 희망해 응시하게 됐으며 필기시험없이 서류와 면접을 거쳐 채용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의 딸인 현선 씨는 지난 7월 공고한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전문계약직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을 거쳐 지난달 31일 단독으로 채용됐다.

특히 면접에 참여한 위원 5명 중 외교부 관계자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정확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일부터 이틀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를 앞두고 광주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원들이 회의장 일대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G20 재무차관회의 오늘 광주서 개최

DJ센터서 이틀간 ... 11월 정상회의 의제 조율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들과 중앙은행 부총재들이 4일부터 이틀간 광주에서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금융안전망(GFSN) 구축 방안을 토의한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1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두 달 앞 두고 각국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논의과정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 성격의 회동이다.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3일,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가 4일과 5일 이틀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첫날인 4일에는 세계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G20 프레임워크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며,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금융안전망(GFSN) 마련 방안을 토의한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강운태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윤립동 윤립제에서 진행된다.

이어 5일에는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에너지 이슈에 대한 점검과 함께 향후 일정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지며, 오후부터는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5개국 재무차관이 참석하는 ‘스티어링 그룹’(Steering Group)회의가 개최된다. 또 6

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한·중·일 거시경제 금융안정 워크숍이 광주 서구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는 행사기간 동안 무등파크호텔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2곳에 안전합동중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광주비엔날레행사장과 국립5·18민주묘지를 둘러보는 시티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유인촌 장관, 광주·전남 방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재민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유임된 이후 처음으로 2박3일간 광주·전남을 찾아 광주비엔날레와 영산강 및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건설현장을 찾은 등 폭넓은 일정을 소화해 주목된다.

유 장관은 3일 오후 광주박물관에서 열린 전시실 재개관 행사에 참석, 2시간 가까이 전시실을 둘러본 뒤 영광원전으로 옮겨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해 마련된 ‘국립현대미술관

아트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둘러봤다. 유 장관은 4일에는 영암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인 ‘영산강 강변 관광개발계획’의 선도 사업으로 계획된 ‘영산강 에코문화체험 블루웨이 조성’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한 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영산강 일대를 둘러본다.

그는 이어 오후에는 F1 국제자동차경주장을 찾아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서킷런 2010’행사에 참석했다가 오후 서울로 돌아간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신문협 편집국장단 회의

한국신문협 편집국장단 회의는 3일 춘천 라데나 리조트에서 편집국장단 회의를 열어 소설·칼럼 연재 등 공동 취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원일보 제공

한국지방신문협회는 3일 춘천 라데나 리조트에서 편집국장단 회의를 열어 소설·칼럼 연재 등 공동 취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F1 성공기원 ‘철인 3종경기대회’ 개최

도, 6일까지 영암군 일대서

전남도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3일부터 6일까지 F1경기장을 중심으로 영암군 일대에서 ‘철인 3종 경기대회’를 개최한다.

철인 3종 경기대회는 수영 3.8km, 사이클 180.2km, 마라톤 42.195km 등 총 226.195km를 17시간 내에 완주해야 하는 경기로, 650명의 선수 등 2000여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다. 완주한 참가자는 철인의 칭호를 부여받는다.

대회는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 오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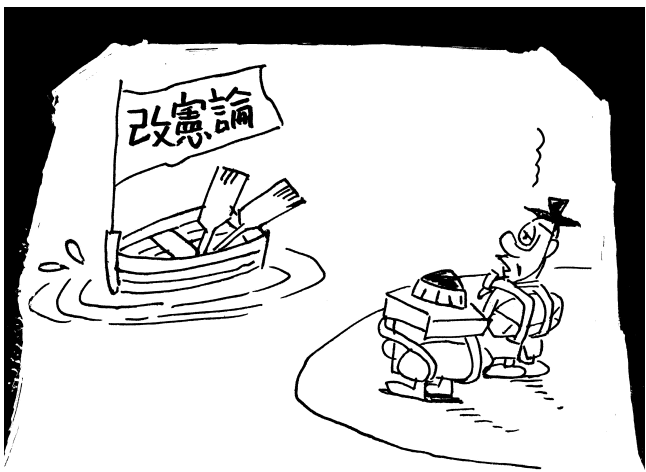
7시부터 삼호중공업 남문 앞 바다에서 수영, F1경주장 인근 지역을 도는 사이클, F1경주장과 대불대 앞 도로에서 열리는 마라톤 경기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을 한 사람이 연속해서 하는 경기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주에 성공한 사람은 철인의 칭호를 부여받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에서는 처음 열리는 철인 3종 경기 준비를 위해 선수 및 동호인 등이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F1 경주대회 홍보 효과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사공없는 나룻배 신세

“수목원 조성 사유지 순차적 매입”

강운태 시장 ‘시민과 대화’서 밝혀

광주시는 남구 양과동에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사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장은 3일 시민과의 대화에서 “재정이 어려워 남구 양과동에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잠시 미뤄놨지만,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사유지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올해 40억원을 들여 4만 5000㎡(44필지)의 사유지를 사들였고, 앞으로 237억원을 들여 32만4000㎡(264필지)를 사들일 계획이었으나, 재정난에 휩싸이면서 사유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강 시장은 “사유지를 사들여 거기에 나무를 심을지, 꽃을 심어 화단을 조성할지는 검토해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남구 봉선동 모아엘가 아파트 앞 시내버스 회차지와 관련해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음벽을 쌓고, 대중교통과장은 직접 해당 시내버스 회사를 방문해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충무지하상가 휴무일을 연 6일에서 24일로 늘려달라는 민원에 대해 “상인들이 토론회와 투표를 통해 압도적으로 휴무일 연장에 찬성한다면 충무지하상가를 관리하는 도시공사는 상인들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智結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唐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경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교마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기획사업국 2200-55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